

“외국인 주식 매각·환전… 당분간 ‘원화 약세’ 이어질 것”

美-이란, 평화협상 마무리 단계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회복세에도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고공행진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 원화와 달러화가 함께 놓여 있다. /뉴스시스

‘중동전쟁’ 종료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달러당 1500원을 넘기며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과 환전 수요가 이어지면서 원화값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4.3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거래일 증가인 1517.2원과 비교해 12.9원 내렸지만, 7거래일 연속으로 달러당 1500원을 넘겼다. 환율이 7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긴 것은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지만, 원

화의 강세는 제한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미국과 이란이 적대행위 중단 및 호르무즈해협 정상화를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해각서에는 향후 30일간 호르무즈해협 선박 운항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2단계 핵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란과의 합의는 위대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예 없을 것”이라면서 “(이란의) 농축우라늄은 미국으로 넘어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이란과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현지 혹은 다른 장소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종전 협상의 전제조건으

로 이란의 핵 개발 일시 중단과 저장된 농축우라늄의 미국 이전을 주장해 왔다. 트럼프가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만큼, 종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더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불확실성을 겪었던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도 빠르게 상승 전환했다. 이날 코스피도 사상 최초로 8000선을 넘겨 장을 마감했다.

정부는 위험자산 선호 회복에도 원화의 약세가 지속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및 환전 수요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국 자산평가액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주식을 110조원 정도 팔았다”라며 “(주식을) 판 뒤 환전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했고, 일시적으로 외환시장이 1500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화가 제한적인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다. 중동사태

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 등 원화의 약세 요인도 여전히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시장이 즉각 반응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진전을 거둔 것은 60일의 합의 뿐”이라며 “혁명수비대의 진의, 이스라엘 등 변수가 남았고, 60일의 휴전 조건도 불명확하다. 협정이 체결되면 시장은 당장에는 환호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환율 하락 폭을 제한하고 있고, 국내 경제주체의 해외 투자 확대 추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원·달러 환율은 팬데믹 이후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고 있으며, 연준이 향후 금리를 크게 인하하기 전까지는 원화의 본격적인 강세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asj1231@metroseoul.co.kr



금융위 ‘미래 상환능력’ 반영 신용평가 손질

2금융권, 체제 개편 ‘예의주시’
“당국 지시따라 포용금융 속도 조절”
“저신용자 대출 확대… 건전성 우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2금융권이 관련 논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연체 이력보다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과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향의 신용평가 체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업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2금융사는 자체적으로 신용평가체계(CSS)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의 신용평가 체제 개편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금융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 체제 개편을 본격화할 것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포용금융 추진단을 출범하고 중금리 대출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기존의 연체 이력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과 성장 가능성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금융권에서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업계에서 포용 금융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사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대안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긴 했으나, 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속도나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금융사 내부에서도 이를 구체화하려면 최소 반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당국이 포용금융 추진단을 꾸리면 저축은행의 참여 범위와 정도가 정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전성 부담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용평가체계 개편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경우 개별 금융사의 연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결국 신용평가 모델에 비금융 데이터를 얼마나 넣느냐의 문제”라면서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중금리 대출이 줄어든 것도 결국은 건전성 문제라는 시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27조81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조1000억원 줄어 들었다. 저축은행의 지난 1분기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1조72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32억원 감소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선 서민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여기에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려면 기대 수익이 예상 부도율보다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대출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 관리 문제까지 얹히면서 중금리 대출이 쉽게 확대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평가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이력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이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지난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의 구조조정”이라는 3부작 글을 올리고, 한국 금융의 신용대출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은 복잡한 생애를 숫자로 압축한 것으로,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며 “신용등급 사이의 공백은 가운데만 행하게 뒀던 도넛 같다”고 지적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현대건설 vs DL이앤씨 ‘압구정 5구역’ 격돌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현대 2·3구역, 삼성 4구역 수주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의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압구정 2·3구역은 현대건설, 4구역은 삼성물산이 수주한 데 이어 오는 30일 압구정 5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일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압구정 2구역을 수주한 바 있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의 현대아파트 1~7차와 10·13·14차, 대림빌라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 5조5610억원 규모로 단일 도시정비사업 기준으로 최대다. 지하 7층~지상 최대 66층, 총 5175세대 규모의 초대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3구역은 ‘압구정 현대’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최선을 다해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고 미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하이엔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3일 압구정 4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총 공사비는 2조1154억원 규모다.

압구정 4구역은 압구정동 일대 현대 8차, 한양 3·4·6차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67층, 8개 동, 총 1662가구로 조성된다.

삼성물산은 하이테크 건축의 거장인 노만 포스터가 이끄는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Foster+Partners)’, 조경 예술의 대가 피터 워커의 ‘PWP’와 협업을 통해 압구정 4구역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조합원 전 세대 한강 조망과 함께 전용률 73.31%, 세대당 4.15평의 테라스 면적을 포함한 평균 21.83평의 서빙 면적을 추가로 제안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포스터 앤드 파트



삼성물산의 압구정 4구역 재건축 투시도(위)와 현대건설의 압구정 3구역 투시도. /각사

너스와 함께 설계한 이번 제안은 외관의 화려함을 넘어 실제 거주하는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검증된 시공 역량과 압도적 실행력을 바탕으로 압구정에서 가장 빠른 입주를 실현해 압구정 4구역을 세계가 동경하는 글로벌 시그니처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압구정 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열린다. 현재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 중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단지명으로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제안했다. 대한민국 최고 주거지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의 상징 ‘갤러리아’를 결합한 이름이다. 앞서 하이테크 건축의 선구자인 세계적 설계사 RSHP와의 협업을 밝힌 바 있으며, ‘OWN THE NEW’ 콘셉트의 비전 필름을 공개했다.

DL이앤씨 역시 압구정 5구역 수주를 위해 글로벌 토타어 기업과 손을 잡았다. 초고층 구조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영국의 ‘에어럽(Arup)’과 골조 시공 제어 분야 글로벌 기업인 오스트리아의 ‘도카(Doka)’ 등과의 전략적 협업을 진행했다. /안심미 기자 smahn1@

은행 대출 연체율 0.56%… 0.06%p 하락

금감원, 3월 말 신규연체 2.7조
은행 연체채권 정리규모 확대 영향

올해 3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6%포인트(p) 떨어졌다. 주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규모 확대로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56%로,

전월 말 대비 0.06%p 내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03%p 올랐다.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약 3000억원 줄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2026년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동년 2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0.11%로 전월(0.12%)보다 소폭 내렸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전월보다 내렸다. 기업대출 연

체율은 0.68%로 전월 대비 0.08%p 내렸고, 특히 중소기업대출이 0.11%p, 중소기업대출이 0.14%p 하락을 기록해 하락폭이 컸다. 다만 대기업대출은 0.0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로, 전월 대비 0.05%p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2% 내렸고, 주택담보 제외 가계대출은 0.05%p 하락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부실로의 전이를 방지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